

명청 백화소설 각본의 이체자 형성 원인에 대한 소고

—청대 금릉 왕아 각본 『서호가화』를 사례로

전성(강소성 태주학원)

초록:

명청 백화소설은 속문학 범주에 속하며, 대중성, 구어성, 통속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서사 형식에 있어서 창작자, 필사자, 각인자들은 종종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창조했다. 백화 단편소설집 《서호가화》는 청 강희 12년(1673)에 책으로 만들어졌다. 《서호가화》 왕아정각본은 각인자의 원인으로 각본 중에 대량의 이체자가 나타났는데 - 상견 문본 중의 통행자와 다른 - 이는 청 초기 서방 각본 용자의 기본 상황을 체현한다. 인공지능 수단을 빌어 《서호가화》 중 이체자를 정리하고, 이들 이체자의 구성, 표의 특징을 분석하며, 이체자가 나타나는 언어환경 조건을 탐색함으로써, 청초 서방 각공이 소설 등 속문학 작품에서 대량으로 이체자를 사용한 문화 심리를 분석할 수 있고, 나아가 명청 백화소설 각본에 대량으로 이체자가 나타난 원인을 탐색하며, 더 나아가 백화소설이 민간에서 대량으로 전파된 문화 배경과 사회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키워드: 《서호가화》; 이체자; 분석; 원인

《서호가화》는 "고오묵랑자(古吳墨浪子)"라는 서명으로 수집된 백화 단편소설집(의화본)이다. 전서 16편, 약 16만자로, 극히 지역 특색이 있는 백화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항주 서호를 고사 장경으로 하고, 항주 특유의 민풍, 민속을 소재로 하여,

성격이 각이한 인물 형상을 조각하여, 소설의 비범한 서사 예술과 강렬한 지역 특성을 창현하여, 독자들에게 매우 환영받았다.

성서 이래로 《서호가화》는 최초 청 강희 연간에 간행되었고, 그 후 여러 판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청 강희 연간 금간록음당 수진본, 청 건륭 16년(1751) 회경당각본, 청 건륭 51년(1786) 개자원각본, 청 광서 18년(1892) 상해문선서국 석인본 등이다.

현존하는 제종 판본 중, 청 강희 연간 금릉왕아정각본은 현재 볼 수 있는 가장 이른 간본이다. 왕아각본은 강희 12년(1673)에 간각되었고, 현재 북경대학도서관, 중국예술연구원희곡연구소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학원출판사 2015년 영인본이 있고, 선장 1함 4책이다. 처음에 호상부요자(湖上扶搖子)라고 서명한 《서호전도》와 《서호십경》정회설색전도가 있으며, 오색 투인이다. 《서호전도》와 《서호십경》십정 판화는 석청, 석록, 주홍 등 채색으로 투인한 것으로, 매우 정묘하며, 휘주 흥춘 황씨와 향남주 명판화가의 유품이 있어, 이 각본의 조판이 당시 명수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금릉왕아각본 작자 원서 말미에 "강희 세제 소양적분약 맹춘감월망일 고오묵랑자제"라고 서명되어 있다. "소양적분약"은 "계축"년이고, "맹춘감월망일"은 "음력 정월 15일"이다. 이 서가 강희 계축년 정월 15일, 즉 강희 12년(1673) 정월 15일에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 진미림(陳美林), 교광휘(喬光輝) 등 방가들의 《서호가화》 연구는 주로 판본, 작자, 인물 형상, 항주 지역의 개소, 영향과 평가 등 방면에 집중되어 있고, 이체자 연구는 매우 적으며, 더욱이 계통적 정리 성과를 보지 못했다. 관련 현존 판본의 문자 연구 방면에는 단지 두 편의 논문이 있을 뿐이다: 즉 《〈서호가화〉문자교감삼칙》과 《〈서호가화〉방언사고석이칙》이다. 《〈서호가화〉문자교감삼칙》 일문은 당전 점교본 《서호가화》 중 세 곳에서 고속자, 생벽자, 이체자를 식별하지 못해 원문을 오개한 현상을 고증했는데, 이로부터 역시 이체자가 문헌 교감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를 볼 수 있다. 《〈서호가화〉방언사고석이칙》 일문은 "하노실(下老實)" "현현(現現)"이 두 개의 오방언사의 함의임을 고증하여, 독자가 관련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정미한 판화 외에, 해당 각본 중에는 대량의 이체자가 존재한다 - 상견 문본 중의

통행자와 다른. 이들 서자나 각공들이 유의 혹은 무의로 남긴 이체자를 통해, 강희 시대 초기의 서방 각본 용자의 기본 상황과, 청초 서방 각공이 소설 등 속문학 작품에서 대량으로 이체자를 사용한 문화 심리를 탐색할 수 있다.

이체자는 한 한자의 정체 외의 타종 사법이다. 물론, 본문에서 지칭하는 이체자는 명칭 시기 관방이 확정한 "정자" 외에, 동시에 존재하는 그 자음과 자의가 완전히 동일하지만 자형이 다른 일조자를 가리킨다. 우체, 혹체, 중문이라고도 칭한다. 독음, 의의가 같지만 사법이 다른 한자를 가리킨다. 사실상, 그중 일부 이체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다종 자형이 동시에 병행하는 통용자에 속한다. 이체자 존재는 시대, 지역, 문화 배경과 사용자, 사용 수구 등이 다름으로 인해, 다른 자형 선택을 정현한다. 그 원인을 궁구하면, 주요하게는 한자가 의부, 음부와 기호로 조성되기 때문이며, 의부(意符)를 선택하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음부는 또 병음 문자 중 고정 사용하는 자모와 다르며, 기호도 서자의 이해가 다르거나 표의 수요가 다름으로 인해 구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운부(李運富)가 《关于异体字的几个问题》 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자의 역사상, 어떤 구자 요소가 변화했지만 음의가 불변인 이체자가 생산되었다. 이체자는 한자 생산 발전의 정개 역사 과정을 수반하여, 객관적인 역사 현상이다.

이외에, 주지하듯이, 이체자는 번체자와 동등하지 않다. 이체자는 규정된 통행하는 정체자와 동음동의이지만 寫法이 다른 자이다. 번체자는 간체자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음의가 같지만 정체자보다 필획이 많은 이체자이다. 이체자는 정체자보다 필획이 적을 수도 있고, 정체 필획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체자는 번체자를 포함한다. 간체자는, 고명사의하면, 필획이 적은 자이다. 때로는 간화자를 특지하는데, 간화자는 관방이 공포한 간체 한자로, 국가가 규범 형식으로 공포한 표준(1964년 공포, 1986년 조정한 《간화자총표》)이며, 즉 현재 통용되는 서면 간화자이다.

1. 《서호가화》 각본 이체자 개황

인공지능 기술을 빌어, 《서호가화》 금릉왕야각본을 정리하여, 우리는 그 중의 이체

자가 총공 233개임을 발견했다(주: 일부 이체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당시에는 통용할 수 없었지만 조판인쇄사상의 특수한 원인으로, 전파와 열독시의 통용 혹은 차용을 형성했다. 또한 일부는 각공의 자행 창자나 민간 상견자에 속하고, 《강희자전》 등에 보이지 않으며, 후세에는 모두 이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 기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언》 부분에 이체자 10개; 권일 《갈령선적》에 이체자 72개; 권이 《백제정적》에 이체자 40개; 권삼 《육교재적》에 이체자 31개; 권사 《영은시적》에 이체자 8개; 권오 《고산은적》에 이체자 6개; 권육 《서령운적》에 이체자 10개; 권칠 《악분충적》에 이체자 9개; 권팔 《삼태몽적》에 이체자 15개; 권구 《남병취적》에 이체자 4개; 권십 《호계소적》에 이체자 2개; 권십일 《단교정적》에 이체자 5개; 권십이 《전당패적》에 이체자 5개; 권십삼 《삼생석적》에 이체자 2개; 권십사 《매서한적》에 이체자 5개; 권십오 《뇌봉괴적》에 이체자 2개; 권십육 《방생선적》에 이체자 7개이다. 구체적 상황은 하표 상세.

[표: 《서호가화》 강희 12년 각본 이체자 분포표 - 생략-중문본 참조]

2. 《서호가화》 각본 이체자 분석

분류는 사물을 인식하는 유효한 수단과 중요한 방법이다. 《서호가화》 이체자를 심입 인식 연구하기 위해, 필자는 233개 이체자를 다른 각도에서 분류했다. 《이아》는 사어의 표의 특징에 근거하여, 소석 4300개 文詞를 19류로 나누었다. 즉 "석고" "석언" "석훈" "석친" "석궁" "석기" "석악" "석천" "석지" "석구" "석산" " "석수" "석초" "석목" "석충" "석어" "석조" "석수" "석축" 등 19류이다. 소설 창작의 시대 배경을 빌어, 이 시기의 언어 습관을 분석하여, 우리는 사어의 유별 중에서, 사어의 주요 함의와 속성을 대치 장악할 수 있다. 이를 모방하여, 우리는 《서호가화》 233개 이체자를 "육서"의 각도, 구형의 각도와 표의 등 몇 개 각도에서 분류 연구하여, 각본 이체자의 형성 규율과 표의 특징을 비교적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1) "육서" 각도에서 《서호가화》 각본 이체자 분석

"육서"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를 가리키며, 현행 한자 중에는 회의자와 형성자가 많다. 《서호가화》 해당 각본 중, 형성자가 가장 많아 187개로 80.3%를 점한다; 회의자가 다음으로 29개로 12.4%를 점한다; 이어서 회의점형성자로 16개, 6.9%를 점한다; 상형자는 1개로 0.43%를 점한다. 이로써 이체자의 형성은 형성자를 주로 하고, 회의자를 보조 하며, 기타 형식이 보충함을 설명한다.

형성자 187개: [이체자 목록 생략-중문본 참조]

회의자 29개: [이체자 목록 생략-중문본 참조]

회의점형성자 16개: [이체자 목록 생략-중문본 참조]

상형자 1개: 𠂔

(2) 구형의 각도에서 《서호가화》 각본 이체자 분석

통행자와 대조하면 알 수 있듯이, 《서호가화》 중의 이체자는 형방 증가, 편방 체환(형방, 성방), 편방 증식, 편방 이위, 변화, 와자, 동음 체환, 해화 등 몇 종 유형이 있다. 심지어 일부 이체자는 몇 종 다른 유형을 겸속할 수 있다(황정의 《돈황속자전》 참견).

편방 증가. 증식 편방과 다르게, 이류 이체자는 통행자 기초상에서 편방을 증가한다.

통행자와 비교하여, 《서호가화》 중의 이체자에는 형방을 증가한 것이 있다. 예: 鑑、鬚、錄、捨、採、鑿、倖、廻、闢、𨾏、殊、塗、築、陞、糴、糴、餉、鞦、韁、窻.

[이하 각 이체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시 - 중요 부분만 번역]

예를 들어 "鑑——𦔻", 이체자 "鑑"은 그 본자가 "監"으로 회의자이며, 사람이 그릇 속 물을 향해 관조함을 표시한다(고인은 물을 거울로 삼음). 후에 "監"이 "감시" 등으로 차용되면서, 전문적으로 "거울" 의미의 "監"은 본자 기초상에 형방 "금"을 증가하여, "감시"의 "監"과 구별하게 했다. 후에 사람들이 동경으로 조형했으므로, 자형이 "금"을 따르는 "𦔻"자를 만들고, 성이 "경"으로 전했다.

[이하 다양한 이체자 유형과 예시들에 대한 상세 설명 계속]

편방 체환, 형방 체환, 성방 체환으로 나눌 수 있다. 모두 61개 이체자로 26.2%를 점한다.

[이하 편방 체환에 대한 설명과 예시-중문본 참조]

편방 증식. 또 형방 증식, 성방 증식으로 나눌 수 있다.

편방 이위가 있는 것: 畧、羣、鯨、𩺰、毘、胷、洵、濶、默、颯. 이 유형은 모두 12조로 5.2%를 점한다.

전초, 서사 과정에서 자형이 와변한 자, 속자라고도 한다. [예시 생략-중문본 참조] 이 유형은 모두 27조로 11.6%를 점한다.

통행자 기초상에서 변화한 것: [예시 생략-중문본 참조] 이 유형은 모두 52조로 22.3%를 점한다.

동음 체환법을 운용한 것: [예시 생략-중문본 참조] 이 유형은 모두 38조로 16.3%를 점한다.

해화를 통해 온 자: 幣、舉、宐、弔, 이 유형은 모두 4조로 1.7%를 점한다.

(3) 《서호가화》 각본 이체자의 표의 특징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서호가화》 중의 이체자 정체 상황을 정리한 후 우리는 발견했다. 그중 일부 이체자는 통행자와 비교하여, 그 증가한 형방이 표의 작용을 한다. 모두 91개로 39.1%를 점한다. 이는 서사자나 각공이 보기에, 일부 통행자 구형 표의가 불분명하므로, 적당한 개변을 만들어, 편방을 증가하거나 필획을 바꾸면,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그 의사를 명백히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서호가화》 중 변화 이체자는 22.3%를 점하고, 간화된 통행자는 77.7%를 점한다. 이는 통행하는 간화자가 언어 경제 원칙을 본받아 세상에 통행함을 설명한다. 그러나 《서호가화》 중에는 아직 이성 많은 변화 이체자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원인은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중 원인이 이하 두 방면으로 축성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방면으로는, 서자나 각공이 求新求變하여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함이고; 다른 방면으로는 서자나 각공들의 문화 심리 소구를 반영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후일 방면이 혹시 주도 위치를 점거했을 것이다 - 변화는 주요하게 서자 각공들이 자기의 문화 수평을 현시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필경 한자 간화는 인식하기 쉽고, 읽기 쉽고, 쓰기 쉽지만, 변화는 힘과 정신

을 소모하여, 각고 노력 학습하지 않으면 인독할 수 없다. 변화 이체자는, 통행자와 비교하여, 모두 필획이 번무하여 인식하기 어렵고 쓰기 어려우므로, 언어 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현대인에 의해 규범되었지만, 이들 이체자는 역사상 문화 전승에도 자기의 공헌을 했다.

3. 《서호가화》 각본 이체자와 한자 정리

《서호가화》 이체자 중, 94개 자가 《第一批异体字整理表》에 수록되었다.

[이체자 목록 생략]

이 94개 이체자는 요새는 자주보이지 않으며, 규범의 대상에 속한다. 그 원인을 궁구하면, 이들 이체자는 언어의 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쓰기 어렵고, 인식하기 어렵고, 기억하기 어려워, 학습에 불리하므로 규범화하여 간화자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역사상 이들 이체자가 문화 전승에 자기의 공헌을 했음을 보아야 한다. 《서호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이체자도 자기의 독특한 표의 기능이 있고, 이들 이체자의 사용에서도 서자나 각공들의 문화 심리를 절사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적극적 의의가 있다.

결어

필자 통계에 따르면, 청 강희 연간 금릉왕아정각본 《서호가화》 중 모두 이체자 233개가 있어, 기본적으로 청조 초기 민간 한자 서사와 통속소설 간각시 선자, 용자의 역사 면모를 반영한다.

첫째, 명칭 고적 배판 격식이 각판 서사, 간각 방식이 상하로부터 쓰는 것을 결정했으므로, 상견 편방 이위의 이체자가 일반적으로 모두 통행자의 좌우 구조에서 상하 구조로 변했다. 이러한 방식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찬사 방식에 부합한다. 예: "群——羣", "魂——魘" 등.

둘째, 《서호가화》는 민간에서 통행하여, 그 구어가 때로 서면어에 영향을 미쳐, 방언 독음과 같은 자로 모자를 체환하여 구신이를 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 "嚇——吓(吓)".

마지막으로, 각공의 속사 습관과 전각 심리가 이체자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각공이 자기의 문채를 매놓하여, 기타 판본과 다른 자를 체현하고자 하여, 이체자의 필획 구성을 개변하고, 편방부수를 증가하고, 표의 특징을 증강하여, 다양한 문맥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명청 문헌 우기 백화 속문학 작품은 권질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현존 관련 속문학 작품 각본 중, 이체자 사용 현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빌어, 청 강희 왕야각본 소설 《서호가화》 소존 233개 이체자를 통해, 초보적으로 명청 백화소설 등 속문학 작품 관련 각본 중에 대량으로 이체자가 나타난 원인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고서의 판면 구성 방식, 민중의 독서 수요, 각공(刻工)의 통속적인 필사 습관, 그리고 판각(雕版) 과정에서의 다양한 심리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해야 한다.

(태주학원 인문학원, 강소 태주, 225300; 남경대학 태주학파연구중심, 강소 남경, 210004)